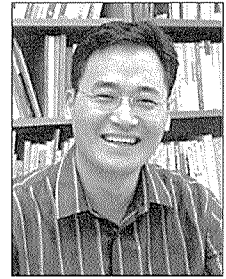


주인이 되는 길



김 종 성*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독서와 도서관에 관련된 교사단체나 시민단체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라는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도서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들은 주로 교사, 시민운동가, 출판인, 주부, 학자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한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열의와 신념에 나는 늘 감동 받고 자극 받는다. 도서관을 제대로 세우고 활성화하는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본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순서로 따지자면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가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도서관에서 일하지도 않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런 계기를 통해 이들 비전공자들의 활약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정작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내가 경험한 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도서관계와 사서직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작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방치해 두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있는 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001년 서울의 한 도서관이 민간 위탁되어 개관하는 과정에서 관장 등 핵심보직에 사서가 아닌 인사를 임명하자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00정보도서관 부적격인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적격 인사 철회를 요청하여 결국 도서관장을 전문가로 임용하게 하는 성과를 얻어냈을 때 도서관계는 거의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서와 도서관계가 도서관 문제에서 보수성 내지는 비주체적 태도를 보였었다. 우리의 문제를 남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동안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독서인증제, 독서이력철, 독서매뉴얼 등의 방안들이 나오면서 교육계, 독서운동단체, 출판계 등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학교의 독서교육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충고하고 건의하는 것은 도서관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도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서관 분야의 새로운 영역에서도 우리 관계나 학계는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나 학계 할 것 없이 일상의 과중한 업무에 묶여 있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러지 못하고 남들이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적 지위와 전문적

* 우리 협회 독서진흥위원회 위원,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js1010@kmu.ac.kr

영역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책무와 봉사 기회를 방기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9월 30일(금) 열린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는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들고 나가서 크게 외친 결코 흔하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도서관계 외부 인사들의 도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날 결의대회의 주인공은 전국에서 모인 사서교사들과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이었다. 두 시간 동안 비를 흠뻑 맞으며 흔들림 없이 뜻을 표출한 760여 명의 도서관인들이 그날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날의 외침이 당장 큰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발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계기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것은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준 것이어서 더욱 더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강단의 울타리에 갇혀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의 양식과 윤리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고 개입하여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버스 속에서 비에 흠뻑 젖어 한기에 떨던 학생들이 무척 애처로워 보였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으로만 끌어안았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그들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